

한국 디자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소고: '웰빙'과 '심신일원론'

An Inquiry into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n Design: 'Well-Being' and 'Body-Mind Monism'

주저자 : 고영란 (Ko, Young-lan)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

본 논문은 2004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1. 서 론

2. '웰빙' 현상

3. '웰빙'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4. '웰빙'의 계보로서의 '심신일원론'

5. 결 론

참고문헌

(要約)

최근 우리나라의 '웰빙' 현상이 상품화된 웰빙의 유사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빙 철학의 기저에서 낚아 올릴 수 있는 한국 디자인의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잠재적 가치마저 간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행복'과 '안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웰빙은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지향함으로써 '심신일원론'적 라이프 스타일을 옹호하고 있다. 소비주의에 편승한 유행으로서의 웰빙의 상품 미학을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유한 대안 담론

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 디자인 콘텐츠의 고유모델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웰빙이라는 보편적 기호가 담지하고 있는 양질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발굴이 요청된다. '자연의 도'를 따르는 생활태도와 다름 아닌 웰빙은 동아시아의 탈-이원론적 사유방식의 전형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일원론적 사상과 조형의식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웰빙의 흔적을 역으로 추적함으로써 저급의 웰빙 현상과 심신일원론을 연결하는 계보를 좁게는 한국, 넓게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본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동아시아의 일원론적 사유 체계를 서구로부터 수입된 웰빙 현상의 이론적 모태로 삼을 경우, 한국의 디자인 담론이 탈-식민화 되는 단초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구 중심의 이원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야 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시대에 일원론적 인식에 기반 하는 웰빙이 국내외 디자인계에 던져줄 잠재적 의미성에 기대를 걸어볼 일이다.

(Abstract)

It is incontestable that the essence of the current fever of well-being is pseudo-ideology, which is the commercialized well-being. Nevertheless, the potential value as the cultural contents of Korean Design, reaching the philosophy of well-being, must not be overlooked. Being more than its dictionary meaning of 'happiness' and 'welfare', well-being aims peace of mind and richness in mentality, thus supports the life style of 'Body-Mind Monism'. As a trend that has taken a ride on the consumerism, it is inevitable to excavate the benign cultural value that an ordinary sign of well-being lacks in order to create a peculiar model of Korea's design contents by sublimating the commodity aesthetic of well-being into an alternative argument possessing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Well-being, not much different from an attitude of following the 'ways of nature', is a typical model of non-dualistic thinking of East Asia. By tracing back to the indication of well-being that already existed in the non-dualistic thought and design of East Asia, the genealogy connecting the current phenomena of well-being to the Body-Mind Monism can be found in the cultural traditions of as close as Korea and as far as East Asia. In the case of adopting the monistic way of East Asian thinking that sees body and mind as one not two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well-being imported from the West, it is expected to provide a solution for the design discourse of Korea to be out of colonialism. Well-being contributes to the monistic awareness in the period of self-reflected modernization, which needs to search new values based on the reconsideration of dualistic paradigm centered on the Western culture, thus it is worth putting anticipation on the potential significance well-being would have in the field of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design world.

(Keyword)

Well-being, Cultural Identity, Body-mind Monism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 '웰빙(well-being)'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화장품과 가전제품은 물론이요, '웰빙주택,' '웰빙패어,' 심지어 '호밀빵 웰빙버거'에 이르면 차라리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듯싶다. 혹자는 우리나라 특유의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작금의 웰빙 과열 열풍을 빗대어 '웰빙 폭풍'으로 표현하며, '웰빙 권하는 사회'로 회화화 하거나 '웰빙 때문에 웰빙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웰빙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좀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몸과 정신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기존의 삶의 패턴을 청산하고, 신체와 의식이 모두 충만 된 상태인 마음의 평안을 중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신일원론'적 라이프 스타일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자에 회자되는 웰빙이라는 단어는 물론 서구로부터 수입된 개념이다. 그러나 담론의 정당성과 이식성 여부를 무리하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이론의 적법성 여부는 그것이 현실의 미시적 구조를 얼마나 적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미래의 모습을 얼마나 거시적, 문명사적 시각에서 그려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 있어서의 웰빙 개념의 출현 원인이나 그것이 현재 차지하는 문화적 위상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웰빙의 문화적 의미를 계보학적 관점에서 탐사하는 가운데 목도 하게 되는 쟁점은 한국, 넓게는 동아시아 문화의 심신일원론적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메타 담론인 것이다.²⁾

웰빙의 낯익은 내부의 적은 언제나 그렇듯이 상품화, 도구화된 웰빙의 유사 이데올로기이다.³⁾ 가장 현혹되기 쉬운 웰빙의 유사품은 건강에 대한 강박관념을 재생산하는 기호이다. 문제는 보편적 기호가 증발해 버린 우리사회의 기형적으로 발전한 대중문화⁴⁾ 속에서 대중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잘 먹고 잘 살자' 식의 천민적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외에 집착할 그 무엇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2. '웰빙' 현상

최근의 디자인 트렌드 속에 불과 일년 전만해도 생경했던 웰빙이란 레퍼토리가 추가된 현상을 단순히 유행의 변덕스러움으로

1) "디자인 개념의 인식론적인 층위들: 추상, 보편, 역사," 디자인과 지식 (서울: 월간 디자인네트, 1999), 9월호 별책부록, pp. 13-27에서 최범은 계보학적 방법에 의한 디자인의 역사는 디자인을 역사 바깥으로 밀어내는 대신에, 그것을 복합적인 역사의 장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역사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2) 동아시아 디자인의 광대역 정체성 모색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관해서는 필자의 "Identity of East Asian Design and Its Possibility" in *Design Identity in Asia, The 4th Seoul International Industrial Design Forum 2000*, Kaid를 참고할 것.

3)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성장한 웰빙의 쌍둥이 형제로써 잡식성이며, 엄청난 대식가인데다가 무엇이라도 --자신에 저항하는 카운터-이데올로기마저도-- 소화시킬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위장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김광현, 기호인가 기만인가 (서울: 열린책들, 2000).

치부하기에는 하필 웰빙 이냐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웰빙이란 '서갑속의 웰빙 좌욕기'가 지시하듯이 어떠한 의미도 수렴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탄력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웰빙 열풍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여타의 트렌드 분석이 그렇듯이, 웰빙 현상을 몇 가지 원인으로 환원해서 규명하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여러 관점에서 점검하는 일은 가능하며, 필요하다.

웰빙이 세인들의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을 보편적 시각에서 고찰해 볼 때, 우선 웰빙 현상은 고도 자본주의 사회가 겪는 일종의 '성장 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간 대부분의 사회를 지배해 온 맹목적인 경제성장의 의미에 대한 방향감 상실과 함께 산업적 생산양식의 부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환경문제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삶의 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이다.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정치적 모멘텀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포스트-냉전시대의 도래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대사회적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소시민적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으므로 건강이나 웰빙 같은 탈-이념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탈-이념적 추세를 가속화 시키는 경제사회적 요인으로는 역시 세계화 추세를 빠뜨릴 수 없다. 세계화가 만연될수록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망은 위축되기 마련이며, 개인적 능력에 대한 상대적인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마지노선인 몸에 대한 탐닉이 웰빙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상정할 수 있다. 몸의 감각에 대한 부활은 또한 디지털 사회가 초래한 '기술적 역설'로도 설명할 수 있을 터이다. 근자의 디자인계에서 회자되는 가장 트렌디한 개념 둘을 꼽으라면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웰빙'을 거명할 확률이 높은데, 비물질화 경향의 범-사이버 문화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로써 육체가 지닌 생명력의 재 영도화 작업을 통한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조절 기제라는 측면에서 웰빙을 독해해 볼 때, 결국 둘은 동전의 양면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웰빙 열풍은 위에서 열거한 보편적인 것대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맞이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예외상황도 그 하나에 속한다. 냉전구도의 마지막 타자인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냉전 시대의 구습인 좌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 내지 강화, 확대하려는 집단적 욕망이 정치적 이슈를 포함하여 문화적 변화를 유인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웰빙에 열광하는 작금의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인 청년실업과 같은 불안한 사회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무력감이 '자기애'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사회심리학적 반응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가 지닌 특수성은 단일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획일적인 사회라는 점이다. 다양하지 않은 가치 구조로 이루어진 문화적 토양 속에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동화되고자 하는 집단주의적 무의식이 웰빙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웰빙 권하는 사회'를 초래한다고 여겨진다. 웰빙 족이 됨으로써 동질화가 제공하는 안도감을 택하는 사회심리적 기제로 작동하는 우리나라의 웰빙 열풍은, 그러나, 열풍에 대한 답은 될 지언정 왜 하필 웰빙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웰빙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웰빙과 '웰루킹(well-looking)'의 경계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루키즘(lookism)'의 대표적인 예로는 하나의 문화적 신드롬을 일으킨 '얼짱', '몸짱' 열풍을 들 수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 카메라의 일상화는 굳이 보드리아르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실존에 선행하는 시대로 탈바꿈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짱' 문화의 출현이 지시하는 몸 가꾸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 웰빙을 일상적 스타일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문화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작 루키즘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몸이 가지는 함의는 도외시키고 이미지만 쫓는 외모지상주의가 웰빙의 진정한 가치를 저지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웰루킹을 좇는 사회현상을 이미 보편화된 '성형수술'을 통한 변신이라고 하더라도 천박한 상업주의와 미디어 조작의 합작품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백안시할 일만은 아닐지 모른다. 몸에 대한 '자기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소하게는 '명품' 착용을 통한 자기 변신조차 고정된 문화적 코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즉, 전통적으로 생물학적 한계와 사회계급에 간혀 왔던 외양과 관련된 정체성의 코드를 자율적으로 해체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개인의 정체성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고정적인 것도 아니라 자신이 재구성해 낸다는 점에서 가히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혁명적 승리로 독해 될 가능성이 있다.⁵⁾ 물론 이러한 진보적 견해 속에도 미디어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이미지 상품으로 둔갑한 허구적 '유사 자아 정체성' 창출이라는 해묵은 상품미학의 함정이 놓여 있음을 간파할 수는 없다.

루키즘과 더불어 웰빙의 요주의 대상은 건강에 대한 강박관념을 재생산하는 유사 기호이다. '황수관 신드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달리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의 폭이 좁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루키즘과 마찬가지로 '건강 염려증'도 웰빙을 단지 개인적 이슈로 한정시킴으로써 그것이 좀 더 공적인 차원의 사회적 어젠다로 발전될 수 있는 전망을 조급하게 차단하며, 기껏해야 상품미학 적 유사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귀착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웰빙은 움츠러 든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마케팅 키워드로서 선택되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오늘날 제품 디자인의 대세인 기능의 평준화 현상을 타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웰빙이슬정수기' 같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상품의 가치가 기능과 같은 내재적 가치로부터 점차 외재적인, 즉 상품미학 적 가치로 옮겨가는 일반적인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현상이다. 물질적 가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물질주의적 소비문화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웰빙이 차별화된 상징 기호를 지닌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함으로써 또 다른 소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히려 소비를 해야 하는, 즉 '웰빙' 때문에 웰빙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그것이

5) 이미지의 '특', 정체성의 상관관계와 그것이 함의 하는 문화적 전복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Douglas Kellner, 김수정, 정종희 역, 미디어 문화 (서울: 새물결, 1997), 8장 마돈나, 패션, 이미지, pp. 469-526을 참고할 것.

다. 하지만 역시 마케팅적 요인만으로는 왜 웰빙 인가에 대한 답으로 충분하지 않다. 웰빙이 아닌 어떤 캐치프레이즈라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또한 마케팅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마케팅적 동인은 모든 상품이 기반 하는 일반적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웰빙 현상을 만들어낸 직접적 인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3. '웰빙'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웰빙 현상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웰빙 과열 현상의 진원지를 파악하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은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각 원인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웰빙 현상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로 작동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발견되는 한국적 현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웰빙이 지닌 문화적 의미의 커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역사철학적 차원에서의 해석, 즉 웰빙을 감히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의 내용과 연계 시킬 수 있는 이론적 정당성은 소위 계보학적 역사 모델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본 고의 가설이다. "원래 니체에게서 연원하는 계보학은 기원을 이루는 과거의 한 시점으로부터 가지런히 내려오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 방향의 역사이다."⁶⁾ 계보학적 시각에 따르는 웰빙의 고고학적 탐사는 기원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변형되어 증식되고 파편화된 웰빙의 문화 유전자를 추적함으로써 바야흐로 웰빙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해석학적인 해안을 제공할 것이다. 계보학적 독해는, 따라서, 현재 일회성 트렌드로 보이는 작금의 웰빙 열풍을 최신 유행 내지는 마케팅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탈-역사화 시키는 대신에 현재와 과거의 시간을 중첩시킴으로써 웰빙의 원형질을 동아시아의 심신일원론의 계보 속에서 발견하는 가운데 웰빙에 관한 전체 그림이 돌연히 떠오를 수 있는 비선형적인 역사적 잠재성에 주목하는 방법이다.⁸⁾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과 '안녕'이지만 문자 그대로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지향해 마지않는 인생의 대명제이므로 웰빙이 함의하고 있는 일상성과 범상성이 대중들로 하여금 웰빙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받아들이고 모방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듯하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웰빙이 이미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중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웰빙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 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잘 사는 것의 의미가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우리도 한 번

6) "'웰빙' 타령에 '웰빙' 망칠라," 한겨레21, 2004. 02. 26.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1168/

7) 최범, p. 24.

8) 푸코는 과거, 현재, 미래에 연결고리가 없고,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있어 과거는 일종의 계보학에 불과하였으므로 역사를 고고학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푸코는 우리가 의식하는 근원이 절대적 진리라는 서구 형이상학의 지적 전통을 거부하고, 근원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의식 밖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잘 살아 보세"를 외쳤던 1960년대 식 물질문화로부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2000년대 식 라이프 스타일 형 문화로 이행해 가는 언저리에 웰빙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탁석산은 한국의 정체성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가능하는 기준으로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이라는 준거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웰빙은 그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현재성과 대중성의 기준은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다만 "주체성이 정체성 판단의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체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그의 설명대로 현재의 웰빙 현상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체적인 현상인 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탁석산의 주장대로 주체성이 태도의 문제라면, 웰빙의 주체성 문제는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 시제적인 당위성을 함의하는 전향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웰빙은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을 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태로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외래어인 웰빙이라는 비-자생적인 단어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는 일이다. 답을 찾기에 앞서 서구 문화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비-서구적인 문화 요소들을 수용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⁹⁾ 산업디자인

9) "나는 한국의 정체성 탐구를 위해서 우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출발하고, 현재의 현상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체성 판단의 기준의 하나는 현재성이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의미나 중요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현상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현상이 고찰의 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 .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연관이 없는 과거사 논의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현재성만으로는 정체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어떤 조건이 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성이 그 다른 조건 중 하나가 된다. . . . 왜냐하면 대중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는 뜻이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 . 소수가 즐기는 것이 정체성 판단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다. 즉 소수가 즐기는 것이 어떤 형태론든-원형 그대로이든 변형된 양태론든-대중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 따라서 우리는 우선 대중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 거기에 다수가 좋아하고 염원하고 편하게 느끼는 무엇인가가 있다. (중략)

현재성과 대중성 외에 고유성과 창의성 판단의 기준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주체성이다. 그럼 주체성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표면적 현상이 아닌 현상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똑같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가곡을 전공한 두 사람이 있다. . . . 한 사람은 자신이 이탈리아 노래를 될 수 있는 한 원형 그대로 재현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 . . 반면에 다른 한 . . .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탈리아 가곡을 우리 문화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 . 그는 궁극적으로 한국음악에 관심이 있다. 두 사람의 태도 차이를 나는 주체성의 문제라고 하겠다."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2000), pp. 103-111.

10) 동양이 어떻게 서양 사상 및 문화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는가를 동서양의 교류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흥미 있는 서적들이 최

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초기의 '예술공예운동'에서부터 최근의 '젠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서구 디자인의 형식과 내용에 미친 비-서구 디자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일례로, '자포니즘(japonisme)'이 1860년대에 이미 유럽 디자인 문법 중의 하나로 정착되었을 정도로 서구 디자인이 참조해 온 시각용어 사전 속에는 풍부한 동양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툴루즈 로트렉, 제임스 맥닐 휘슬러, 에밀 갈레 등이 작품에 서명할 때 동양의 낙관을 흉내 낼 정도이었다. 사실, 아프리카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는 서구 모더니즘의 자양분이 된 양대 젖줄이었다. 서구 지식인들이 유럽 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택한 아프리카, 또는 고갱의 버전인 남태평양의 건강한 원시성과 동아시아의 세련된 이국적 아취는 -외계인과 사이보그가 레퍼토리에 추가되기 전까지는- 근시안적인 합리주의라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 그들에게 탈출구 이상을 의미하였다. 모더니티의 본질이 자기비평적 경향의 심화과정이자 "그 자신에 대한 대립 속에 있는 위기개념"¹¹⁾이라면, 서양은 비-서구 문화를 자신의 문화 속에 지속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문명의 진화를 꾀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문화 또한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생성된 결과일 확률이 다분하다. 일례로, 석굴암에서 발견되는 한국 미학의 정체성에 관해 학위논문 준비하는 박사 지망생이 출처를 찾고자 멀리 중국의 돈황 까지 갔다가 석굴암 정도의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불상이 돈황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광경을 목도하고는 그만 영영 울어버렸다는 일화가 있다. 과연, 최초의 문화적 충격이 진정된 후의 그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짐작하건 데, 돈황 석불의 원류에 대해 생각한 그는 그것이 빛지고 있는 간다라 양식에 눈을 돌렸을 것이며, 간다라 양식의 원류가 다름 아닌 그리스 조각상이라는 사실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과거의 세계도 나름대로 글로벌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실�크로드를 사이에 두고 그레코 로만 문화의 아칸사스, 소아시아의 아라베스크, 중국의 당초, 그리고 한국의 인당초 문양이 동일한 식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디자인과 그것을 배태한 각각의 문화는 특수하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김대성이 신라인인가 중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인가 하는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문화의 시원과 문화의 정체성은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디자인 사 강의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의 하나는 일본의 유키오에 판화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직선적 아르누보에, 다른 한 편으로는 곡선적 아르누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냐는 의문이다. 이렇듯 남의 나라 문화를 마구잡이식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학생들의 예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영감은 받는 자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타 문화는 해석을 기다리는 하나의 텍스트일 뿐, 문화의 순수성이라는 실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에 속속 발간되고 있다. J. J. Clarke,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4); C. A. Bayly, *The Birth of the Modern World, 1780-1914: Global Connections and Compariso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4) 등이 그것이다.

11) Matei Calinescu,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서울: 시각과 언어, 1993), p. ix.

"위대한 문명은 순결한 고립이 아니라, 강력한 잡식성에서 창조되는 것"¹²⁾ 임을 인식할 때 '이식 문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이분법적 경쟁 모델은 극복될 수 있다. 이제 문화 교류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마인드를 지닌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한국 문화를 보는 관점에 이른바 순종주의, 별종주의, 잡종주의가 있다고 한다. 잡종주의적 주장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모색에 유효한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까닭은 한국 문화가 지닌 역동적 캐릭터, 즉 "외부적 충격에 대해 짧은 시간에 그토록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 불가해한 활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창조와 이식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극복하는 문제는 한 때는 현재이었을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과거인 현재의 웰빙 현상 같은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어떤 면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것의 진수를 녹여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주체적으로 창조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가 남긴 몫이다.

4. '웰빙'의 계보로서의 '심신일원론'¹³⁾

웰빙이 라이프 스타일 이라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이다. 그것의 진정한 향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개의치 않는 분위기 속에서 웰빙이라는 텅 빈 기호만이 자기중식을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도 문제이지만, 웰빙 현상에 대해 마치 새로운 문화적 코드라도 발견한 듯 법석을 떨 일도 아니다. 웰빙은 동아시아 문화의 전통만큼이나 오래된 클래식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해석을 가하자면 웰빙은 '자연의 도'를 따르는 생활태도와 다름 아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탈-이원론적 사유방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심신일원론은 웰빙이라는 문화적 기호가 상품화, 도구화된 유사 이데올로기의 덩어리 아니고 우리나라의 건강한 문화적 어젠다로 자리매김하는 데 근거가 될 핵심 역량이다. 이 주장에서 중요한 관점은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영위하고자 하는 웰빙의 '유기적 감수성'과 동아시아 문화의 정신과의 접점은 멀게는 자포니즘 으로부터 가깝게는 쟈 스타일에 이르는 일련의 시각적 오리엔탈리즘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사상적 전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심신일원론적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일원론적 사상과 조형의식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웰빙의 흔적을 역으로 추적함으로써 웰빙 현상과 심신일원론을 연결하는 계보를 동아시아의 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노리라는 가정을 전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철학을 관통하는 큰 골격은 정신-물질, 선-악, 영혼-육신, 형이상학-형이하학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상이다. 이원론적 사상은 분리적일 뿐 아니라 위계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즉 정신이나 영혼, 사고는 중요하고, 현실 공간을 차지하는 육체나 물질은 부차적이라는 사상인 것이다. 정신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자의적

인 의미부여는 서구 휴머니즘의 근저를 이루어 왔다. 플라톤이 '형이상학'의 세계를 발견한 이후 인간과 자연, 정신과 육체 사이의 상호 배타적 및 계층적 특성은 서구 인식론의 원형이 되었으며, 이는 중세철학 체계 내에서 더욱 발전되어, 특히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 위에 군림하는 영혼의 우월성을 이론화시켰다. 정신과 물질의 본성에 관해 최초로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 시킨 학자는, 주지하듯이,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의 인식론과 그리스도교의 영혼설 사이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그리스도교에서 주장하는 육신-영혼 이원론의 세속적인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당시의 과학혁명과 궤를 같이 하여 완전히 분리된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적 실체를 주장하는 데카르트의 견해는 실재를 경험과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는 플라톤의 형이상학 전통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물리적, 수학적 세계로부터 출발한 플라톤과 데카르트의 철학이 중국에는 형이상학의 세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서구 사유체계의 지향점인 정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¹⁴⁾ 결국 정신성의 증시는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 아니라 자연의 우두머리라는 인간-중심주의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태고 적부터 육체와 정신, 현상과 본체, 자연과 인간, 삶과 죽음의 이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실존적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구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과 예술 및 종교의 근간이 되어 왔다. 서구의 전형적인 해결 안은 바로 정신을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심신이원론'이다. 이원론이 편리한 해결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상성이 지니는 당혹스러움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이성의 세계 속으로 숨어버림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육체-정신의 딜레마는 육체로부터 정신을 분리시키거나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안으로는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접근방법이 심신이원론과 대비되는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의 핵심적인 성향이라 불리는 심신일원론이 지향하는 길이다.¹⁵⁾

심신일원론 적 사유체계는 도가사상의 '음양'이나 선불사상의 '불이'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현상과 본체, 육체와 정신,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융합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성향이 지배적이다. 육체와 정신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상은 그것이 '도'로 불리건 또는 '산'으로 불리건 인간의 몸을 포함한 삶의 모든 국면을 실제 생활 속에서 직접적, 주관적으로 체험하려는 태도를 지칭한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소통방식은 추상

12) 최원식, "이식문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넘는 '이식과 창조의 변증법.'" 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서울: 인학출판부, 1999), 교수신문, 제178호, 2000. 04. 24. 10면에서 재인용.

13) 본 단원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필자의 "디자인 지식의 동아시아 적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경제연구 '99년 1집 (서울: 한성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9), pp. 3-24를 참고할 것.

14) 서구 디자인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정신'에 대한 압박증세는 모던 디자인 운동의 선구자들이 지닌 이데올로기에 질게 드리워져 있던 종교적 색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데 스틸'의 피에르 몬드리안이나 요하네스 이텐을 포함하는 '바우하우스'의 구성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신지학에 몰두해 있었으며, 르 꼬르뷔제 같은 순수주의자 들도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5) 사실 '일원론'이라는 용어는 서구의 '심신이원론'과 차별화하기 위해 편의로 붙여진 이름이다. 일원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자칫 기왕에 존재하는 이분법적 경험 그 자체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잘못된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표현은 '비-이원론'이다. 세상을 경험하는 데에는 또 다른, 비-이원론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 동아시아적 관점이며, 이 다른 형태의 경험이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분법 적인 사고방식보다 실제로 더 진실에 가깝고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써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이' 사상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적 언어나 관념적 사고를 초월하여 우리의 몸을 포함하는 삼라 만상에 담겨있는 자연의 에너지인 '기'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의 지각 능력인 '마음'에 최우선 권이 주어진다. 서구 철학에서는 자연 또는 육체의 물질성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며, 자연철학적 출발점과는 모순되게 현실에서의 경험과 유리된 형이상학의 안전한 세계가 종착역이라면, 동아시아 철학이 강조하는 것은 경험의 물질적 수용 통로인 몸을 통해 주위의 환경과 부단히 상호교류 함으로써 우주의 한 부분인 인간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직접적으로 자각하는 일종의 '몸 철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사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한 인식과 깨달음, 즉 정신과 육체라는 인간의 전 존재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¹⁶⁾ 라는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비-지성주의'적 사유방식이 출현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의 일원론적 사유모델은 동양 철학만의 배타적 영역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일원론적 사유방식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이 공유했던 세계 인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서양 지식체계의 기반이 된 심신이원론에 입각한 분석적 사유방식은 그 명쾌한 합리성 덕분에 문명의 진보, 특히 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맹점 때문에 현대의 탈-이원론적 대안들에 의해 도전 받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식의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의 심신일원론적 통찰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¹⁷⁾

"진정한 지식은 비언어적이며 개념을 초월 한다"¹⁸⁾는 동아시아의 철학적 대전제에서 주목할 만한 지적 태도는 현상과 감각 경험 사이의 절대 평등의 일원론적 세계인식 방법이다. 일례로, 심신이원론을 '환상'으로 간주하는 선불교는 경전에 의한 교리에 역매이기 보다 명상수행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직접 터득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실천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사실 동아시아의 심신일원론의 핵심은 서양에서는 정확한 대응 개념을 찾을 수 없는¹⁹⁾ "심신통합의 수행 가능성"²⁰⁾에 있으며, 이 부분

16) Yasuo Yuasa, *The Body: Toward an Eastern Mind-Body Theory*, trans. Nagatomo Shigenori and Tomas P. Kasuli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p. 25.

17) "지난 4세기 동안 서양철학은 인간과 자연, 정신과 몸,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양분되어 왔다. 이 같은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위계질서는 서양철학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코기토>나 계몽된 탈신체적 이성에 기반 한 <근대성>이 거의 동시적으로 추락하고, 낮게 평가되었던 것, 근대성에서 무시되었던 자연의 죽음, 그리고 몸 또는 여성이 오히려 현대철학에서 중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희영, *몸의 정치* (서울: 민음사, 1999), p. 194.

18) Alan Watts, *Nature, Man and Woman* (New York: Random House, 1970), p. xii.

19) 신경생리학, 심층심리학, 임상심리학, 대체의학 등의 분야에서 요가나 선 등 동양의 심신일원론적 견해를 뒷받침 할만한 육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서구에서 이해하는 수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 동아시아의 심신일원론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현대 심신이원론은 정신과 육체적 현상 사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인 반면, 동아시아의 그것은 개인의 수련에 따라 학습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는 전체

이 웰빙 라이프 스타일 이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생활에, 요리에, 몸에 조금씩 입혀나가는 것"²¹⁾이라는 '수신'으로서의 웰빙의 의미와 교차되는 부분이다. 육체와 정신의, 인간과 환경 간의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심신일원론은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최적의 상태로 돌보자는 움직임"²²⁾인 웰빙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전 경험을 고양시키는 구체적인 체험에 관심이 있다. 결국 둘은 자연스러운 몸의 자극²³⁾ -시간뿐만이 아니라 후각, 촉각, 청각 등의 공감각- 을 통해 자신의 참 모습을 각성 시키는 심신 통합의 수신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 결론

물질적인 가치나 명예를 얻기 위한 삶 보다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웰빙은 이제 '아로마 세라피'로부터 '명상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인의 생활코드로 정착되고 있다. 몇 해 전 포스트모더니즘의 마지막 불씨를 잠재우고 절제된 라인과 색조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밀레니엄의 벽두를 경건하게 장식한 젠 스타일이 특정 국가의 디자인 스타일을 환기시키는 다소 좁은 의미의 양식적 접근이라면, 그 후속 편 격인 웰빙은 비-서구적 삶의 태도를 수용하는 일종의 대안 담론과 연루된 좀 더 넓은 의미의 문화적 오리엔탈리즘으로 해석된다. 설령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오리엔탈리즘²⁴⁾의 바람이 동양에 대한 진정한 이해라기보다는 에드워드 세이드가 간파했듯이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으로 신비화된 '이국적인 타자'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서양이 동양을 타자화시키기 전에 동양이 먼저 현재의 웰빙을 포함한 오리엔탈리즘의 내재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공론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으로 주체화 시키려는 의제선점의 의지가 중요하다. 심지어는 웰빙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웰빙이 국지적 담론이 아닌 이미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동서 문화가 모

아래 심신일체의 깨달음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20) Tomas P. Kasulis, Introduction to *The Body*, p. 3.

21) "웰빙시대," 조선일보, 2004. 04. 19. D1.

22) "'웰빙' 타령에 '웰빙' 망칠라."

23)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과 '경혈'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의학에선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든 생명 속에 내재해 있는 '자연 치유력'이다. 사람의 몸 특정부위에는 이런 자연 치유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점들이 있는 바, 경락과 경혈이 그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이 반응 점을 침이나 뜸, 혹은 현대에 들어서는 레이저 등을 통해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여, 병을 낫게 하며,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극'이다.

24)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장인 장 보드리야르 역시 동양 문화가 지닌 대안 담론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양 문화 전반에는 근대 이전의 전통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 서구 기술문명이 합해지면, 근대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술, 과학, 문명 중심인 서구에선 한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 현재를 파괴해 왔지만, 동양에선 그렇지 않다." "정치인은 '이미지의 포료'와 같은 존재," 조선일보, 2002. 09. 27. A19.

두 원하는 것, 그것이 젠 이긴, 퓨전 이긴, 웰빙으로 불리던 구미만큼이나 우리도 지금 심신일원론에 입각한 건강한 문화가 디자인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향기를 발산할 수 있기를 열망하며, 그러한 우리의 욕망은 앞서 웰빙 현상의 원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컨텍스트에서 볼 때 지극히 정당하다는 점이다.

구미 디자인을 모방하는 데 전력을 다했던 동아시아 문화가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 나온 후 마침내 그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웰빙이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심신일원론 이었다는 자각은 한국 디자인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 해맨 이들에게는 굿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연구는 서구의 이론을 빌어 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계적으로 대입시켜 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으나, 몸과 마음이 본디 둘이 아니라는 동아시아의 일원론적 사유체계를 서구로부터 수입된 웰빙 현상에 적용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디자인 담론이 탈-식민화 되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웰빙이 심신일원론을 이론적 모태로 삼을 경우, 한국의 디자인계가 타자의 시선으로 채색된 식민지 디자인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자인 담론의 생산자 입장에 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 사물의 조형성이나 기능성, 또는 그것의 안티-테제인 상징성에 천착해 온 서구의 형식주의적 디자인이나 기능주의적 또는 도구주의적 디자인, 혹은 상징주의적 디자인 개념과는 다르게 현상이 본체의, 육체가 정신의, 자연이 인간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됨으로써 양자가 상호적인 전체가 되는 '웰빙 디자인 철학'을 전망할 수 있다. 어쩌면, 디자인이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한낱 도구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자아완성에 이르게 하는 정신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가능성마저 상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디자인의 궁극적 존재이유가 형태표현의 전달을 위한 조형적 수단이나 불편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기능주의적 역할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지원자로 그 지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적 해석을 넘어서 디자인 철학 및 비평의 준거 틀로 심신일원론을 주창하는 웰빙 이론이 아직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다는 사실도 어려움이기보다는 축복처럼 여겨진다. 정형화된 이론적 모형의 부재는 역으로 학문적 체계모니를 선취할 개연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웰빙이라는 화두는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았던 그간 우리나라의 디자인 담론에서 하나의 이념적, 인식론적 지향 점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인터디자인 '99 서울>의 주제가 'Design for Body and Mind (몸과 마음을 위한 디자인)'이었다는 것과 <2001 서울 세계산업디자인대회>의 주제가 '어울림'인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세기에 부합하는 산업디자인의 위상과 산업디자인의 정체성을 지시해 줄 모형의 담론을 이끌어냄으로써 문화-디자인-인간의 대안적인 모형을 공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2001 Industrial Designers' Declaration (2001 산업디자인자 서울 선언)'에서 웰빙을 지시하는 주체적인 디자인 담론²⁵⁾이 전 세계의 디자이너

25) Industrial Design will no longer aspire only to material well being - Challenge (산업디자인은 더 이상 물질적 차원에서만 행복을 구하지 않는다 - 도전)

들에게 유포하는 '선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었다. 서구 중심의 이원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인식과 상상력을 수반하는 21세기적 가치를 모색해야 하는 성찰의 시대에 존재의 균형감과 전일성을 지향하는 웰빙이 국내외 디자인계에 던져 주는 잠재력은 실로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란: 디자인 지식의 동아시아적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경제연구, 제1집, 한성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9).
- 김광현: 기호인가 기만인가, 열린책들, (2000).
- 정화영: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 최범: 디자인 개념의 인식론적인 층위들: 추상, 보편, 역사, 디자인과 지식, 월간 디자인네트, 9월호 별책부록, (1999).
- 최원식: '이식문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넘은 '이식과 창조'의 변증법, 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출판부, (1999).
-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 Bayly, C. A.: The Birth of the Modern World, 1780-1914: Global Connections and Compariso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4).
- Calinescu, Matei: 이영옥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가과 언어, (1993).
- Clarke, J. J.: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우물이 있는 집, (2004).
- Kellner, Douglas: 김수정, 정종희 역, 미디어 문화, 새물결, (1997).
- Ko, Young-lan: Identity of East Asian Design and Its Possibility, Design Identity in Asia, The 4th Seoul International Industrial Design Forum 2000, Kaid, (2000).
- Watts, Alan: Nature, Man and Woman, New York, Random House, (1970)
- Yuasa, Yasuo: trans. Nagatomo Shigenori and Tomas P Kasulis, The Body: Toward an Eastern Mind-Body Theo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 웰빙 시대, 조선일보, 2004. 04. 19. D1.
- 정치인은 '이미지의 포로'와 같은 존재, 조선일보 2002. 09. 27. A19.
- '웰빙' 타령에 '웰빙' 망칠라, 한겨레21, 2004. 02. 26.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1168/

Industrial design shall strive to arrange mutual, equal and holistic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people and objects; people and nature; and the mind and body by searching for the place of harmony between 'subject' and 'object' - Mission (산업디자인은 '주체'와 '객체'의 합일을 추구함으로써 정신과 몸,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 조화로운 유기적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 사명)

We, as enlightened industrial designers, shall promote a life blessed by the rediscovery of the deeper values and meanings concealed in everyday existence, instead of provoking endless human desires Renewed Calling (우리 산업디자인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재생산하기보다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의미들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삶을 축복으로 이끈다 - 새로운 소명)